

人間學의 對象과 그 本質的 制限 (2)

金基錫

主體로서의人間 또 그 客體로서의 人間의 環境. 이것은 엇던 交涉 및 聯關을 가지는 것인가. 人間의 生活이란 人間 및 自然에 대한 人間자신의 不단한 交涉에서 構成된다. 存在의 世界는 물론 人間의 意識에 內在된 것은 아니다. 人間이 그것을 意識한다고 비로소 存在하고 人間이 그것을 意識하지 않을때 마침내 消滅하는 觀念의 世界 가튼 것은 아니다.

우리들을 에워싼 存在의 世界는 그것이 人間을 싸면서 또 人間과 한가지로 그 자신의 現實性을 主張한다. 人間이 자기를 意識하기를 기다려서 存在하기는 커녕 人間이 이 地上에 나타나고 안는 것을 問題도 삼지 않다시피 그 자신의 存在性, 運動性을 確保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實在의 客觀性을 主張하는 現實主義의 正當한 論據를 是認 또 擁護해야한다. 意識에 있어서 存在를 說明하려는것은 意識이 본대 그 자신 어느 意味의 存在로서의 意識임을 모르는 한 개 □越한 企圖에 지나지 않는다. 存在는 意識을 버서나서 또 意識조차도 그 속에 품는 한 개 實在의 世界를 보인다. 人間은 말하자면 이 實在의 世界 속에서 자기와 마주 서는 環境에 대하여 不단히 대들고 싸호고 하는 어느 意味의 主體의 世界가 아닐가.

存在는 人間의 意識에 內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存在는 모도 人間과 마주 서는 人間의 環境 가튼 意味를 가지지 안혀서는 안된다. 人間의 環境이 되지 안는, 따라서 人間으로 더불어 全然 交涉 하는 것이 아닌, 純粹한 自然 가튼 것이 어느 구석에 잇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人間이 그 속에서 살고 또 죽는 現實的인 世界는 되지 못한다. 人間과 人間의 環境이 서로 制約, 規定하는데서 짜나아가게되는 歷史的 社會的인 實在의 世界는 되지 못한다.

現實의 世界는 첫째 人間이 그 속에 잇고 또 人間과 마주서는 客觀의 意味를 가 진것이 그 속에 잇는 具體的□□이 아니면 안된다.

人間의生活은 단순히 認識에그치는것은 아니다. 行動에로 實踐에로 기운차게 달리는途程. 이달리는 人間과 아울러 人間이그우에서 난위는 原野가 우리들이 말하는 現實의世界란것을 構成한다.

人間과 全然交涉하지안는 存在란것이 잇슬것인가. 人間의意識에 드리와 마치안는 物自體란것이 잇기는있다. 그러나이物自體란것이 人間에게 주어진다는데서 人間으로 더부러어느意味의 交涉가튼것을 가진다는데서 비로소 客觀의 世界에대한理性의 認識이란것이 可能한것이 아닐가. 처음부터 주어지지안는 世界를 아모리 정돈된範疇를가춘 理性이기로서니 認識해내이는 재주가 잇는가. 『칸트』는認識의 主觀과 그客觀과의사이에 도저히 넘어설수업는크다란 溝渠가 잇다는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친다. 그리고 이溝渠이편을理性, 이溝渠저편을物自體라고 부르면서 人間의理性이미칠수잇는 根本限界란것을우리들에게 가르친다.

『칸트』의見解는 人間의認識에關한이야기인한에서 우리들은만흔것을 배워야한다.

그러나 人間의理性이 마침내너머서지못하고 그만두는 이溝渠를 人間의生活이란것이 보기조케너머서는것이아닐가. 『칸트』의이른바 久遠한溝渠를 넘어서서物自體의 樹林사이를 마음대로거니는 人間의 行動과實踐. 이物自體가 認識의對象은아니면서도 理解의對象 體驗의對象은되어야한다. 여기서 우리들은 認識論과 손을난호는 哲學本來의넓은原野 진실로 넓은原野에나선다.

哲學은 무론 생각하는일이다그러나 머리로만생각하는일이란것에대한 몸으로생각하는일이란것이업을것인가. 哲學은 진실로오랜동안을 머리로만생각하는哲學이되어왔다. 이리하여 잠잠한思惟 고요한 觀想인데서 그자신의 구차스러운限界를 직혀나려왔다. 그러나 哲學은 본대머리로가아니고 몸으로 생각하는哲學이 되어야할것이 아닐가. 몸으로 늦기로 헤아리고하는理解 解釋 反省 想念 體驗가튼것에잇서서 哲學은 그자신의살진原野에 내여달어야 할것이아닐가.